

2019년 3월 6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종목 장세 속에 약보합 마감 알파벳 등 인터넷 관련 업종과 타겟 등 소매유통업체 강세

### 글로벌 증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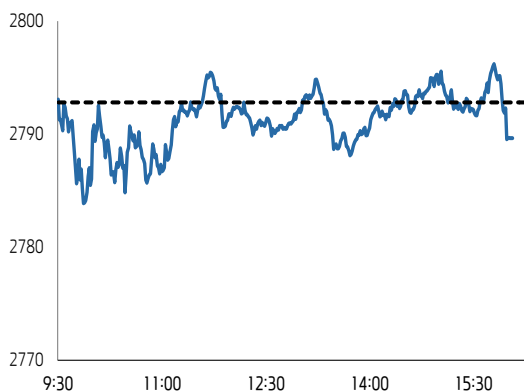
미 증시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출발했으나, 소매유통업체들의 실적 개선 및 대형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조건 속에 상승 전환 성공. 이후 변화를 보이기 보다는 차익실현 매물과 반발 매수세가 충돌하며 약보합 마감(다우 -0.05%, 나스닥 -0.02%, S&P500 -0.11%, 러셀 2000 -0.45%)

최근 글로벌 주요 증시는 차익실현 매물과 개별 기업 이슈에 반응을 보이며 지수 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종목 장세가 특징. 강한 반등을 보였던 중국 증시의 경우 정부의 거래세 감면 정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힘입어 증권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 더불어 5G, OLED 관련 부양정책 발표를 기반으로 관련주가 상승을 주도. 전일에는 금융주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으나, 올해 정부 정책방향이 '경기부양' 및 '민간기업 전략적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며 기술주 및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종목 장세가 여전한 모습.

미 증시 또한 이번 주 들어 종목별로 차별화가 뚜렷한 모습. 인터넷 관련주의 경우 민주당의 '망 중립성'을 유지하는 법률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음. 오늘도 알파벳 등은 견고한 실적 기대감을 높이는 내용이 나오며 상승세를 이어감. 한편, 소매유통 업체들은 타겟과 콜스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종목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 더불어 민주당이 2020 년 대선 정책에서 'Medicare For All' 관련 문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헬스케어 업종의 변화도 특징.

이렇듯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들의 주식시장은 개별 종목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등락을 보이고 있음. 이는 미-중 무역협정, 영-EU 간 브렉시트 협상, ECB 통화정책, 연준의 FOMC 등 주요 변수를 앞두고 개별 종목 이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 당분간 이러한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 지수      | 종가        | D-1   | 지수   | 종가        | D-1   |
|---------|-----------|-------|------|-----------|-------|
| KOSPI   | 2,179.23  | -0.52 | 홍콩恒生 | 28,961.60 | +0.01 |
| KOSDAQ  | 747.95    | -0.02 | 영국   | 7,183.43  | +0.69 |
| DOW     | 25,806.63 | -0.05 | 독일   | 11,620.74 | +0.24 |
| NASDAQ  | 7,576.36  | -0.02 | 프랑스  | 5,297.52  | +0.21 |
| S&P 500 | 2,789.65  | -0.11 | 스페인  | 9,258.20  | -0.02 |
| 상하이종합   | 3,054.25  | +0.88 | 그리스  | 698.83    | -0.76 |
| 일본      | 21,726.28 | -0.44 | 이탈리아 | 20,715.97 | -0.01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소매유통업체 강세

타겟(+4.58%)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 했다. 콜스(+7.31%)도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월마트(+0.50%), 코스트코(+0.65%) 등 소매유통업체들도 동반 상승 했다. 알파벳(+1.37%)은 유튜브에 대한 가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더불어 페이스북(+2.32%)도 광고 수익 증가 기대감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강세를 보였다. 한편, 민주당이 망 중립성 폐기를 되돌리는 법률안을 제시하겠다는 발표로 전일에 이어 오늘도 인터넷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줬다. 넷플릭스(+0.93%)도 상승 했다.

한편, 유니아이티드헬스(+2.29%), 에트나(+2.08%) 등 헬스케어 업종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메디케어 관련 문제를 본격화 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반면, 코노코필립스(-1.27%), EOG리소스(-1.35%)등 셰일 기업들과 솔룸베르거(-0.99%), 할리버트(-1.66%) 등 에너지 서비스업종은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향후 에너지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하락 했다. 테슬라(-3.09%)는 중국 정부의 모델3 승인에도 불구하고 목표주가 하향 조정여파로 하락 했다. GE(-4.72%)는 올해 적자가 될 수 있다고 발표하자 급락 했다.

### 주요 ETF

| ETF 종류             | 등락률    | ETF 종류               | 등락률    |
|--------------------|--------|----------------------|--------|
| 원유시추업체 ETF(XOP)    | -0.88% | 대형 가치주 ETF(IVE)      | -0.18% |
| 에너지섹터 ETF(OIH)     | -0.86% | 중형 가치주 ETF(IWS)      | -0.22% |
| 소매업체 ETF(XRT)      | +0.82% | 소형 가치주 ETF(IWN)      | -0.56% |
| 금융섹터 ETF(XLF)      | -0.38% | 대형 성장주 ETF(VUG)      | -0.10% |
| 기술섹터 ETF(XLK)      | -0.30% | 중형 성장주 ETF(IWP)      | -0.19% |
|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 +2.48% | 소형 성장주 ETF(IWO)      | -0.27% |
| 인터넷업체 ETF(FDN)     | +0.31% | 배당주 ETF(DVY)         | -0.17% |
| 리츠업체 ETF(XLRE)     | +0.26% | 신흥국 고배당 ETF(DEM)     | +0.83% |
| 주택건설업체 ETF(XHB)    | -1.23% |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 +0.65% |
| 바이오섹터 ETF(IBB)     | -0.52% | 미국 국채 ETF(IEF)       | +0.06% |
| 헬스케어 ETF(XLV)      | -0.05% | 하이일드 ETF(JNK)        | 0.00%  |
| 곡물 ETF(DBA)        | +0.55% | 물가연동채 ETF(TIP)       | -0.04% |
| 반도체 ETF(SMH)       | -0.51% | Long/short ETF(BTAL) | +0.71%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 S&P 500 | Close    | D-1    | D-5    | D-20   |
|---------|----------|--------|--------|--------|
| 에너지     | 488.11   | -0.31% | +1.10% | +1.63% |
| 소재      | 343.29   | -0.50% | -1.73% | +2.56% |
| 산업재     | 633.73   | -0.64% | -1.05% | +3.42% |
| 경기소비재   | 875.33   | +0.20% | +0.35% | +2.79% |
| 필수소비재   | 557.73   | -0.04% | -0.09% | +1.44% |
| 헬스케어    | 1,058.64 | -0.07% | -0.80% | +1.15% |
| 금융      | 437.48   | -0.33% | -0.33% | +0.87% |
| IT      | 1,240.55 | -0.29% | -0.39% | +4.34% |
| 커뮤니케이션  | 156.37   | +0.73% | +1.14% | +1.75% |
| 유틸리티    | 288.19   | -0.17% | +0.75% | +3.88% |
| 부동산     | 215.91   | +0.26% | +0.46% | +1.39%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는 0.24% 하락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는 0.99% 상승했다. 야간 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977 계약)에 힘입어 0.30pt 상승한 281.00pt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4.9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중국 증시는 금융주에 대한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며 상승했다. 미 증시도 대형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 결과와 소매유통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차익 매물 출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마감했다. 한편, 한국 증시도 매물 출회되며 부진했으나, 바이오 및 대북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졌다.

특히 전일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수주 안에 평양으로 협상팀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점을 감안하면 관련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갤럭시 S10 출시(8일)를 앞두고 있고, 중국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 방향 등을 감안 관련 종목들의 변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서비스업지수 개선

2월 미국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6.7)이나 예상치(57.2)보다 개선된 59.7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57.7→65.2)가 크게 개선된 가운데 고용지수(57.8→55.2) 등은 부진했다.

12월 미국 신규주택 매매는 전월(59만 9천건)이나 예상치(59만건)를 상회한 62만 1천건으로 발표되었다. 중간판매가격은 31만 8,600달러로 전년 대비 7% 하락했다. 전월 수치가 65만 7천건에서 59만 9천건으로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 기저효과에 따른 결과일 뿐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다만,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관련 영향도 컸다고 볼 수 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달러 강세 지속

국제유가는 리비아 최대 유전의 재가동 소식과 중국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수요 약화 전망이 이어지며 부진했다. 더불어 지난 주 미국 원유 재고가 40만 배럴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분석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OPEC 주도의 공급 감소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낙폭은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개선과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의 금리인상 기조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유로화가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양호한 경제지표 영향을 받아 단기물은 상승했다. 더불어 매파 성향의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가 “예상외로 경제가 확장 국면을 보이면 금리인상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주장한 점도 단기물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아직은 완전 고용에 도달하지 않았다” 라고 언급해 여전히 비둘기적 발언을 이어 간 점, 중국 성장률 하향 조정 등으로 장기물은 하락하는 등 혼조 마감 했다. .

금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소폭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 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 했으나, 경기 부양 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4%, 철근도 0.26% 상승 했다.

| 주요 상품 | 증가       | D-1(%) | D-5(%) | 주요 통화         | 증가      | D-1(%) | D-5(%) |
|-------|----------|--------|--------|---------------|---------|--------|--------|
| WTI   | 56.56    | -0.05  | +1.91  | Dollar Index  | 96.834  | +0.16  | +0.87  |
| 브렌트유  | 65.86    | +0.29  | +0.76  | EUR/USD       | 1.1308  | -0.28  | -0.71  |
| 금     | 1,284.70 | -0.22  | -3.30  | USD/JPY       | 111.88  | +0.12  | +1.17  |
| 은     | 15.105   | 0.00   | -5.16  | GBP/USD       | 1.3178  | -0.02  | -0.56  |
| 알루미늄  | 1,874.00 | -0.05  | -1.94  | USD/CHF       | 1.0043  | +0.53  | +0.47  |
| 전기동   | 6,478.00 | +1.08  | -0.23  | AUD/USD       | 0.7087  | -0.07  | -1.38  |
| 아연    | 2,780.00 | +1.05  | +1.46  | USD/CAD       | 1.3346  | +0.32  | +1.34  |
| 옥수수   | 375.75   | +0.27  | -0.07  | USD/BRL       | 3.778   | +0.58  | +0.83  |
| 밀     | 462.75   | +1.59  | -1.17  | USD/CNH       | 6.7052  | -0.03  | +0.28  |
| 대두    | 913.75   | -0.25  | -0.35  | USD/KRW       | 1125.50 | +0.05  | +0.40  |
| 커피    | 99.65    | +2.36  | +2.94  | USD/KRW NDF1M | 1124.98 | -0.02  | +0.89  |

| 10년물 금리 | 증가(%) | D-1(bp) | D-5(bp) | 10년물 금리 | 증가(%) | D-1(bp) | D-5(bp) |
|---------|-------|---------|---------|---------|-------|---------|---------|
| 미국      | 2.719 | -0.36   | +8.30   | 스페인     | 1.151 | -1.80   | +1.50   |
| 한국      | 2.027 | +0.20   | +1.20   | 포르투갈    | 1.455 | -0.70   | +2.60   |
| 일본      | 0.010 | +0.60   | +3.60   | 그리스     | 3.695 | +3.40   | -1.80   |
| 독일      | 0.168 | +1.00   | +5.00   | 이탈리아    | 2.705 | -3.10   | +0.30   |